

보도시점 2026. 8. 18.(화) 15:30 배포 2026. 8. 18.(화) 13:30

‘청년의 시선’을 담다... 재경부 청년인턴 소통 간담회 개최

- 청년들의 고민청취 등 진솔한 소통을 통해 미래세대 시각을 반영한 정책 추진 강화
- 청년인턴 경험이 의미있는 성장과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

이형일 재정경제부(이하 ‘재경부’) 제1차관은 8.18일(화), ’26년 상반기 재경부 청년인턴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고민과 관심사를 경청하고, 자유롭게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.

< 재정경제부 청년인턴 소통 간담회 개요 >

- 일시 / 장소 : ’26. 8. 18.(화) 15:30 / 정부세종청사(중앙동)
- 내용 : 청년인턴의 고민·관심사 공유 및 청년인턴과의 대화 등
- 참석 : 제1차관, 경제구조개혁국장, 청년보좌역, 청년인턴 등

재경부는 청년들에게 국정 현장의 생생한 일경험을 제공하는 한편, 청년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자 ’23년부터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.

이들은 경제통계 및 해외사례 분석, 언론동향 모니터링, 현장방문·회의운영 지원 등 소속된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, 청년의 시각에서 기존 정책의 개선 또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‘정책제안 보고서’를 작성하며 정책기획·수립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였다.

또한, 재경부는 청년인턴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▲보고서 작성 교육 ▲경제·재정 융복합교육 ▲금융권 공공기관 현장탐방과 더불어, ▲AI 활용능력 이론·실습 교육 등을 다각도로 지원하였다.

이 차관은 “재경부에서의 청년인턴 경험이 여러분에게 의미있는 성장과 배움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”며, “실무 및 AI 역량 등을 겸비한 미래 인재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격려했다.

이번 간담회에서 청년인턴들은 ‘청년의 시선’이라는 주제로 ❶청년인턴의 업무성과, ❷청년 세대의 현실 고민(취업·진로·조직생활 등), ❸요즘 청년의 트렌드(핵심가치·유행·이슈 등)에 대해 솔직하게 발표했다.

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이 차관은 “여러분이 들려준 진솔하고 참신한 생각들은 앞으로 재경부가 청년 세대와 더 깊이 소통하고 변화하기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”이라며, “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담아내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경제구조개혁국 청년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찬호 (044-215-8580)
		담당자	사무관	심유정 (simyujung@korea.kr)

